

남자 헤드기어(Headgear) 제작에 관한 고찰
- 본넷(Bonnet)을 중심으로 -

김 경 회* · 문 윤 경
상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Men's Headgear
- Focusing on Bonnets -

Kyung-Hee Kim[†] and Yun-Kyeong Mun

Dept.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5. 3. 28. 접수 : 2006. 1. 13. 채택)

Abstract

There have been in the history of western costume a few studies on men's headgear that cannot be the second to the women's headdress in terms of the gorgeousness and variety whereas the studies on women's hair styles and head dresses have frequently been carried out. Such varieties of the headgear in terms of forms and ornaments have still been found with various types. Thus, the study on the change in designs and details of headgear and the recreation of them may con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the fashion in current vogue and the guidance of the creation for the new desig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such changes in the designs and the methods for the production of bonnets which have played important roles to emphasiz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costumes. As a result, this study may provide key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new designs. As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the women's headdress and men's hat,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to recreate bonne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ortrait analysis. this study will cover the eras from the late fifteenth century to the mid sixteenth century when bonnets began to be produce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s and bonnets are to be reviewed for the selection of bonnets to be recreated. Next step is to make a literature review on the form, materials, colors and ornaments used for bonnets. Finally, the patterns of bonnets is to be illustrated for the reproduction of selected bonnets. Materials to be used in this study for such a reproduction are velvets, silks and wools as presented in the literatures and ornaments to be used are similar to those captured in photos.

Key words: headdress(헤드드레스), headgear(헤드기어), bonnet(본넷).

I. 서 론

복식은 인체를 바탕으로 하여 착용한 사람의 사상
이나 감정을 대변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hairstyle)과 헤드기어
(headgear) 또한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헤드기어는 복식의 변화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생활에 관한 많은 것들과 어울어져 미적인 면

[†] 교신저자 E-mail : kim1023@sungshin.ac.kr

을 강조하는 아이템이다.

지금까지 서양복식사에서 여자 헤어스타일이나 헤드드레스(headress)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어 왔지만 남자 헤드기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태나 장식에 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헤드기어는 현재까지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 헤드기어의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연구하여 제작하는 것은 디자인 창조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방향에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기어의 하나인 본넷을 선택하여 디자인 및 제작방법 등의 변화를 고찰하고 서양복식의 헤드기어에 대한 이해와 제작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문헌상의 시대적 고찰에서 보다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게이블 헤드드레스¹⁾, 프렌치 후드²⁾, 남자 헤드기어의 햇³⁾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헌 연구와 초상화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본넷을 제작하였으며, 시기는 본넷이 나타나기 시작한 15세기말부터 16세기 중반으로 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작할 작품의 선정을 위해 먼저 헤어스타일 및 본넷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넷의 형태, 소재, 색상, 사용된 장식 등 복식문화에 세부적인 사항을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선정된 본넷을 제작하기 위하여 본넷의 패턴형태를 파악한 후 제작하였으며, 소재는 문헌에 제시된 벨벳, 실크, 모직물을 사용하였다. 또 장식은 사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을 구입한 후 선택하여 장식하였다.

제작시 사용된 치수는 본 연구가 초상화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헌에 나타난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부수적인 장식에 관련된 치수는 초상화 헤드기어의 비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의 특징

16세기 초의 헤어스타일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헨리 7세 기간 동안 유행하였으며, 부르고뉴(Burgundy)에 기원을 두고 있다⁴⁾. 이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머리카락을 정수리로부터 모두 빗질하여 이마에 앞머리를 드리개 하고 뒷머리는 어깨 뒤쪽으로 타래 모양을 해서 흘러내리게 하거나 앞머리가 이마에 직선으로 수직인 헤어스타일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1). 이밖에 가운데 가리마를 타서 머리를 관자놀이 위로 커튼 모양처럼 흘러내리게 하고 뒷머리는 어깨 위에 부드럽게 놓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도 있었다.

〈그림 2〉는 젊은 남성들에게 유행하였던 헤어스타



〈그림 1〉 어깨까지 내려오는 헤어스타일. (Tudor Costume And Fashion, pp. 88-89).

1) 김경희, “게이블 헤드드레스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pp. 333-342.

2) 김경희, 문윤경, “프렌치후드 제작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2003), pp. 243-252.

3) 김경희, 문윤경, “남자 헤드기어 제작에 관한 연구-햇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2호, pp. 116-125.

4) Herbert Norris,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7), p. 235.



〈그림 2〉 곱한 형태의 헤어스타일. (Tudor Costume And Fashion, p. 92).

일의 뒷 모습으로 목부분에서 시작되는 아랫부분은 편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앞부분 머리카락은 가운데 가르마를 탄 헤어스타일이다. 헨리 7세는 〈그림 4〉의 왼쪽 상단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웨이브 된 머리카락을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어깨에 흘러내리게 하는 변화된 유행 스타일의 머리를 하였다.

헨리 8세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처음에는 귀 길이에서 머리가 잘랑거리는 스타일을 하였으나 1536년 이후 헨리 8세의 모든 초상화에서는 머리를 모두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곱한 수염을 하였다. 이러한 헨리 8세의 헤어스타일로 인하여 다른 귀족들도 같은 짧은 스타일을 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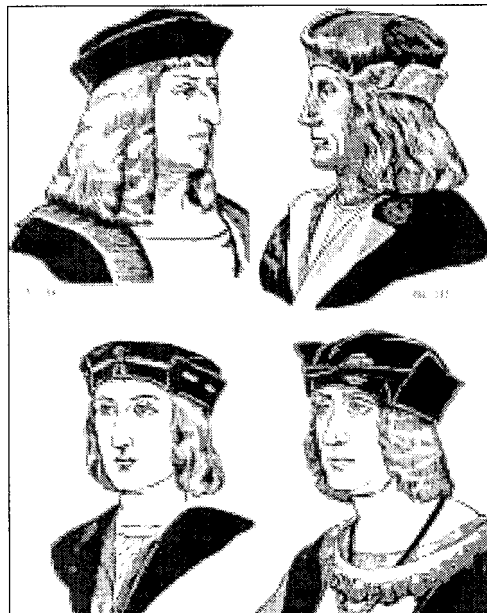
2. 본넷(Bonnet)의 특징

이 기간동안에 유행한 본넷 구조의 특징은 브림의 형태에 있다. 본넷의 형태는 브림이 위로 젖혀있는 형태(그림 4-上左)와 접힌 브림 부분을 2-3인치 벌여지게 하여 레이스로 묶거나 끈을 넣어 묶은 형태(그림 4-下右), 그리고 브림에 메달(그림 4-下右)을 장식하거나 브림의 앞, 뒤, 측면을 금속 끈으로 연결하여 묶은 형태 등이 있다. 1510년부터 본넷은 더욱 장식

되어 세공 작업을 한 메달이나 핀, 브로우치로 보통 에나멜이나 보석을 사용하였고 접힌 브림에는 금 버튼과 금속 줄을 장식하였다. 또 크라운과 브림 사이에 타조깃털을 꽂아 장식하였는데 깃털로 장식할 때는 뒤에서부터 새 날개나 꼬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기이한 장식 효과를 냈다(그림 2). 이러한 깃털 장식은 서유럽 14세기 문학작품에서 처음으로 타조 깃털이



〈그림 3〉 헨리 8세의 짧은 헤어스타일. (Tudor Costume And Fashion, p. 195).



〈그림 4〉 본넷의 종류. (Tudor Costume And Fashion, p. 90).

명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⁵⁾.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며 심홍색, 진홍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5〉와 같은 납작한 형태의 본넷은 프랑스식 본넷을 단순화시킨 형태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행하였다. 형태는 접시의 테두리와 같이 브림이 타원형으로 대략 너비가 약 2.5인치, 크라운 직경이 약 18인치의 크기로 벗었을 때 접시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다. 소재는 벨벳, 비버모피, 모직, 펠트 또는 일반 옷감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장식이 없었으나 한 개의 깃털을 장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납작한 본넷은 점차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브림에 값비싼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되어 브림에 많은 에나멜 구슬과 버튼, 메달, 깃털을 장식하였다(그림 6).

납작한 본넷은 중산층의 남자와 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사람이 쓸 경우는 벨벳으로 만들었고, 젊은층은 검정색 양털로 된 납작한 본넷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⁶⁾. 양털로 만든 본넷은 너무 가벼워 턱 밑에서 묶어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값이 훨씬 저렴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이러한 본넷의 헤드기어는 1570년대까지 유행되었으며 낮은 계급에게 주로 사용되어졌다. 작은 형태의 본넷은 1580년대 동안 궁정에서도 사용되어졌다.



〈그림 5〉 납작한 형태의 본넷. (패션의 역사, p. 57).



〈그림 6〉 깃털과 보석이 장식된 본넷. (The Art of Dress, p. 42).

III. 제작 및 실제

1. 작품 1

1) 작품 선정

작품 1(그림 7)은 1536년 헨리 8세의 초상화에서 보이는 본넷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크라운과 브림이 겹쳐 있는 형태이며 크라운은 타조 깃털에 가리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낮고 작은 크기이다. 브림은 크라운의 둘레보다 넓으며 전등 갓모양처럼 위로 젖혀져 진주와 유색 보석 핀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이는 16세



〈그림 7〉 헨리 8세의 본넷.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 77).

5) 블랑쉬페인저, 이종남외 3인(역),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1996). p. 320.

6) Nancy Bradfield, Historical Costumes of England 1066-1968 (New York: Costume & Fashion, 1997), p. 71.

기 초에 착용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본넷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겉감은 검정색의 벨벳을 사용하였으며 브림이 젖혀진 상태이므로 겉감은 크라운과 브림의 안과 겉 모두 사용하였다. 안감으로는 검정색 실크로 크라운의 안쪽에만 사용되어졌다. 본넷의 브림 위쪽은 타조 깃털, 아래쪽은 보석으로 장식하였다⁷⁾.

2) 제작방법

〈그림 8〉은 작품 1의 패턴으로 a는 본넷의 브림이다. 이 작품은 착용시 본넷이 크라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c와 b는 크라운의 탑과 옆면이다. 옆면의 길이(폭)는 3cm로 착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높이이다. 모자의 브림 안쪽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브로치로 장식하여 마무리하였다.

〈그림 9〉는 작품 1의 착장한 모습으로 본넷의 기본 형태는 펠트로 크라운의 위와 옆면을 0.2cm 땀으로 홈질하여 시접은 최소한으로 남기고 가름솔로 시접 처리 후 나무망치로 두들겨 크라운의 위와 옆면에 1cm 시침질로 고정시켰다.

크라운의 심지와 브림의 심지는 브림쪽에서 시접을 크라운 안쪽으로 올려서 0.5cm 홈질로 고정시켰다. 크라운과 브림의 겉감 시접은 가름솔로 정리하고 브림의 안쪽은 겉감 위에 안감을 접어 올려 숨뜨기로 마무리 하였다.

작품 1은 본넷의 브림이 착용시 위쪽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브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크라운과 브림의 심을 달리 사용하였다.

크라운은 펠트심을 사용하였고 브림은 버크럼을 사용하였다. 겉감은 검정색 벨벳을 사용하였으며(그림 10-1), 브림이 젖혀져 브림의 아랫면이 보이게 된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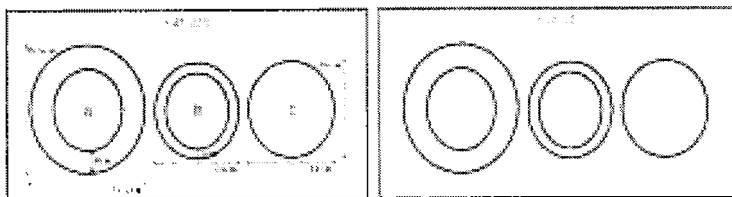


옆

〈그림 9〉 작품 1의 착장모습.

으로 브림의 아랫면까지 겉감을 사용하였고(그림 10-3), 안감은 검정색 실크로 크라운의 안쪽에만 사용하였다.

2. 작품 2



〈그림 8〉 작품 1의 패턴.

7) Alleen Ribeiro and Valerie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London: B.T. Batsfold Ltd., 1997) p. 77.



10-1 위

10-2 타조 깃털 장식

10-3 아래

<그림 10> 작품 1.

1) 작품 선정

작품 2(그림 11)는 1533년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이 그린 그림으로 착용하고 있는 본넷은 1520년~1550년대까지 사용되었으며, 브림과 크라운이 붙어있는 형태로 둘레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착용상태는 머리에 살짝 걸쳐놓은 상태이며, 걸감은 검정색 과일이 있는 캐시미어를 사용하였다. 걸감은 크라운과 브림의 걸만 감싸고 있으며 안은 검정색 실크로 되어 있다.

이 본넷은 다른 본넷과 달리 브로치나 깃털 장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림 11> 프랑스 사신들. (세계의美術, p. 108).

2)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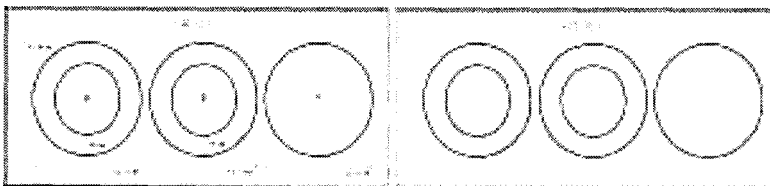
<그림 12>는 작품 2의 패턴으로 a는 본넷의 브림이며, b와 c는 크라운으로 세부분의 원의 크기가 같아서 완성하였을 때 <그림 14>에서 처럼 보인다.

작품 2는 본넷의 형태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심지로 펠트만을 사용하였다.

걸감으로는 기모 느낌이 있는 캐시미어를 사용하였으며, 크라운의 걸과 브림의 안·밖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크라운의 안쪽만 검정색 실크를 사용하였다.

<그림 13>은 작품 2의 착용 모습으로 착장시 머리의 형태만큼 크라운 부분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모양이 된다. 심지는 제시된 패턴보다 0.3cm씩 작은 원 형태로 재단하여 감침질로 크라운의 형태를 잡고, 크라운과 브림의 연결은 안쪽에서 감침질로 연결하였다.

걸감은 크라운의 윗면과 아랫면의 가장자리를 홈질로 연결하고 시점은 가름솔로 정리한다. 크라운의 안감 역시 걸감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다. 크라운과 브림의 연결은 걸감과 안감 모두 홈질로 하며 시점은 최대한 짧게 하여 크라운 쪽으로 꺾어준다. 걸감과 안감의 연결은 브림의 테두리 부분에서 서로 시점을 안으로 꺾어 넣은 상태에서 마주하게 하고 공그르



<그림 12> 작품 2의 패턴.



앞



옆

〈그림 13〉 작품 2의 착용모습.

기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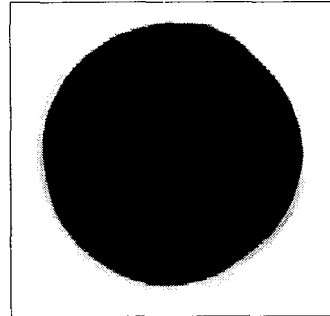
〈그림 14〉는 본넷을 바다에 놓고 윗면과 아랫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본넷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크라운과 브림이 서로 붙어있어서 납작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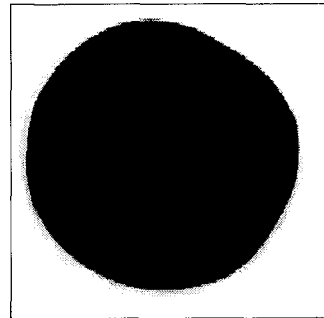
1) 작품 선정

작품 3(그림 15)은 1561년 프랑스 찰스 9세(Charles IX)의 본넷이다. 브림과 크라운을 2-3인치 벌어지게 하여 끈을 넣어 묶은 형태로 타조 깃털로 장식하였다. 이 형태의 본넷은 작품 1과 다른 형태로 크라운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라운이 브림과 떨어져 세워져 있는 형태로 펜트



위



아래

〈그림 14〉 작품 2.



〈그림 15〉 프랑스 찰스 9세의 본넷. (*The Tudor Image*, p. 32).

이외에 거친 마 심지를 하나 더 넣은 것으로 보이며 크라운의 맨 위쪽 둘레보다 브림의 둘레가 작으며 약간 기운 원 형태이다⁸⁾.

8) Arnold Janet, *Pattern of Fashion* (New York: Drama Book, 1985),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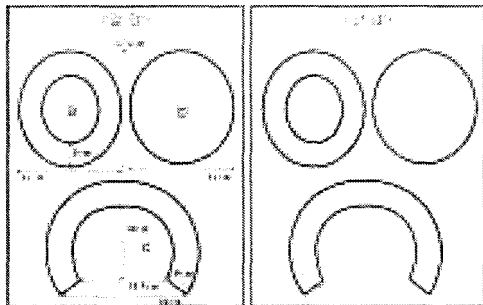
작품 3은 “Pattern of Fashion” p. 35의 패턴과 제작방법을 기초로 완성하였다.

2) 제작방법

〈그림 16〉은 작품 3의 패턴으로 본넷의 브림(a)과 크라운 탑(b)의 원둘레가 같은 크기이며, 크라운의 옆면(c)은 본넷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라운의 탑 둘레와 만나는 곳(바갈선)과 브림의 안쪽 원이 만나는 곳의 길이의 차이를 두어 다투나 주름을 만들지 않았다.

브림의 폭과 크라운 옆면의 폭을 모두 8cm로 하여 착용시 브림과 크라운의 떨어진 모양이 같아 보이게 제작하였다.

〈그림 18〉은 작품 3의 착용 모습으로 본넷의 형태는 심지를 버크럼으로 만들어 펠트로 안팎을 감싸주고 크라운이 브림과 떨어져 있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림 16〉 작품 3의 패턴.



〈그림 17〉 브림의 안쪽 연결 부분. (Pattern of Fashion, p. 25).



앞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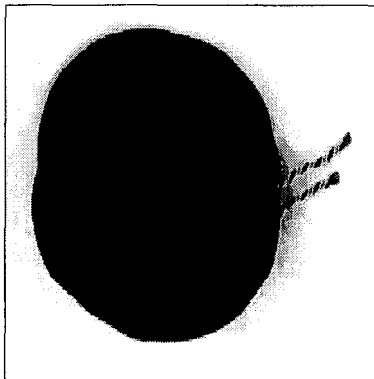
〈그림 18〉 작품 3의 착용 모습.

버크럼을 패턴대로 재단하여 0.5cm 맘의 지그재그로 감침질하여 크라운과 브림을 연결하였다. 버크럼 위에 덮는 펠트심 패턴은 버크럼의 패턴보다 0.5cm 크게 하고 안쪽의 펠트심은 버크럼의 패턴보다 0.5cm 작게 재단하였다. 시점은 가름솔로 처리하여 나무망치로 두들겨 도드라지지 않게 모양을 만든 후 1cm 맘 시침질로 고정시켜 마무리 하였다. 완성된 3장의 심지는 크라운의 탑과 브림면에서 버크럼에 팔자뜨기로 고정시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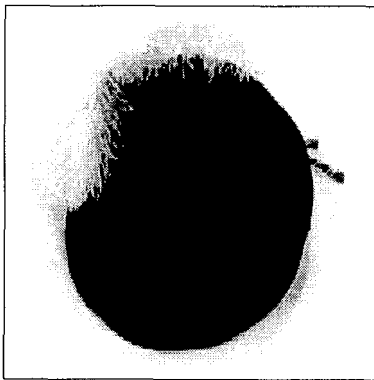
겉감 봉제 시 크라운은 아래면의 옆선을 홈질하여 가름솔로 정리하고, 윗면의 둘레와 다시 홈질하여 가름솔로 처리한다. 크라운의 아래쪽도 브림과 홈질로 연결하여 가름솔로 하고, 겉감과 안감의 크라운은 옆면의 연결 부위를 홈질하여 가름솔로 한 후 윗면의 가장자리와 홈질로 연결하여 역시 가름솔로 정리해

둔다. 만들어 놓은 겹감과 안감의 크라운에 안, 겹감의 브림을 각각 홈질로 연결하여 크라운 쪽으로 시접을 꺾는다. 겹감과 안감 사이에 만들어 놓은 심지를 끼워 놓고 겹감과 안감은 브림의 가장자리에서 연결한다. 이때 브림의 겹감은 안감 쪽으로 꺾어 1cm가량 들어오게 하는데 <그림 17>과 같이 둘레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접부분에 홈질하여 일정하게 잡아당긴다. 브림의 안감은 1cm 안으로 들어온 겹감위로 접어 올려 0.2cm 간격으로 상침한다.

장식은 크라운과 브림 연결 부위에 금사와 전사로 만들어진 로프를 둘러 묶어주고 오른쪽에 흰색 타조깃털을 꽂아 장식한다. 깃털은 크라운의 꺾여진 각도에 따라 크라운의 중심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를 보인다(그림 19).



아래



위

<그림 19> 작품 3.

4.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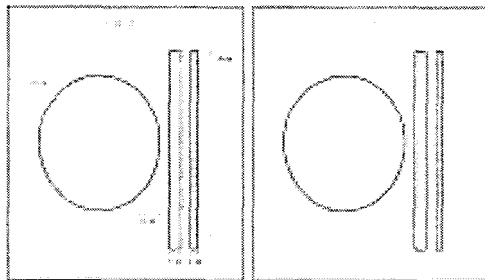
1) 작품 선정

작품 4(그림 20)는 1585년 크리스토퍼 해튼(Christopher Hatton)경의 초상화로 이 본넷은 브림과 크라운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태로 브림 부분이 장식으로 덮혀 있으며 크라운의 앞과 뒤의 높이에 차이가 있고 크라운의 원형이 약간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검정색 벨벳의 본넷에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브로치로 브림 주위를 횡으로 장식하였으며 화려한 핀이나 브로치로 흰색의 타조깃털을 견고하게 장식하였다⁹⁾.

2) 제작방법

<그림 21>은 작품 4의 패턴으로 a는 본넷의 크라운 부분이며, b와 c는 브림의 부분으로 브림의 본체 부분은 폭을 3cm로 하였고 그 위에 2cm의 밴드 부분을 더

<그림 20> 크리스토퍼 해튼.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 93).

<그림 21> 작품 4의 패턴.

9) Ribeiro, A. and V.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London: B.T. Batsford Ltd., 1997), p. 93.

하였다. 크라운은 한 장의 원단으로 윗면과 옆면을 하나로 재단하였으며,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아 브림의 길이를 58cm로 맞추었다.

〈그림 22〉는 작품 4의 착용모습으로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은 크라운의 심지는 펠트를 사용하였으며 걸감의 검정색 벨벳은 원 가장자리를 홈질로 주름을 잡아 브림과 연결하였다. 펠트 심지는 브림의 둘레에 맞춰 원 둘레를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내어 감침질로 연결시켰는데 이것은 심지를 걸감처럼 주름잡았을 때 둔탁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착용시 앞·뒤 크라운의 높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심지에서 부채꼴 모양을 잘라 낼 때 앞쪽 부채꼴의 깊이를 뒤쪽 부채꼴의 깊이보다 깊게 하여 잘라내고 걸감에서는 주름의 분량을 뒤쪽보다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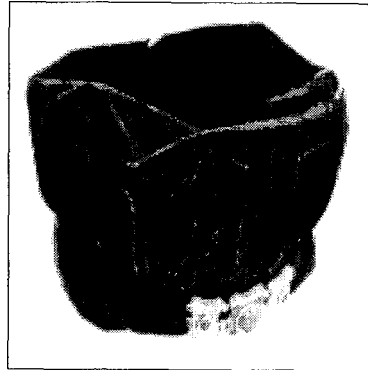


앞



옆

〈그림 22〉 작품 4의 착용 모습.



〈그림 23〉 작품 4의 위.

쪽에 더 주어 형태를 잡아 주었다. 크라운의 안감은 검정색 실크를 사용하였으며, 안쪽에서 윗부분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크기를 1cm 정도 줄인 후 걸감과 마찬가지로 브림의 둘레 길이에 맞게 홈질하여 주름을 주었다. 브림은 안과 밖 모두를 검정색 벨벳으로 사용하였으며 중간에 펠트 심지를 끼워 넣었다. 크라운과 브림의 연결은 홈질 후 가름솔하여 나무망치로 두들겨 준다. 브림의 전면에는 보석 브로치를 장식하고, 뒷면에는 흰색 타조 깃털을 꽂아 크라운 윗면까지 타고 올라오는 모양을 하게 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헤드기어의 하나인 본넷을 선정하여 이전에 제작하여 발표한 프랜치후드나 게이블헤드드레스 그리고 헤드기어의 햇과 마찬가지로 문헌연구와 초상화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다.

본넷의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특징은 브림의 형태에 있다. 본넷은 브림이 겹쳐있는 형태, 크라운과 브림이 붙어있어 원형에 가까운 형태 그리고 브림과 크라운이 약간 떨어져있는 형태 등이 있다.

제작한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1의 본넷은 크라운과 브림이 겹쳐있는 형태로 브림과 크라운 탑, 옆면 세 개의 원형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림에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였다. 소재는 벨벳을 사용하였으며 펠트심과 버크럼을 심지로 사용하였다.

작품 2는 브림과 크라운이 붙어 있는 형태로 거의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브림과 크라운 두 부분이

동일한 원형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는 케시미어와 실크를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펠트를 사용하였다.

작품 3은 크라운이 브림과 떨어져 세워져 있는 형태로 브림과 크라운 탑 두 개의 원형 패턴과 말발굽 형태를 한 크라운의 옆면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는 벨벳을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펠트와 버크럼을 사용하였다.

작품 4는 브림과 크라운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태로 크라운 원형 패턴과 브림 밴드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는 벨벳을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펠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봉제방법은 모두 손바느질을 사용하였으며 장식은 진주와 유색 브로치, 깃털 그리고 장식 끈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며 안감도 검정색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벨벳, 비버 모피, 모직, 일반 옷감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번 제작에서는 걸감으로 벨벳, 케시미어를 사용하고 안감으로 실크를 사용하였다. 심지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버크럼과 펠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제작과정을 통하여 과거 헤드기어의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재현하여 봄으로써 현재 유행하는 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작에 필요한 치수가 인체의 비례를 가지고 치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3). "게이블 헤드드레스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 김경희, 문윤경 (2003). "프렌치 후드 제작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학회* 11권 2호.
- 김경희, 문윤경 (2004). "남자 헤드기어 제작에 관한 연구-햇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2호.
- 블랑쉬페인 (1996).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3인역. 서울 : 까치.
- 신상옥 (1999).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Ashelford, J. (1996). *The Art of Dress :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London: National Trust Enterprises.
- Bradfield, N. (1997). *Historical Costumes of England 1066-1968*. NewYork: Costume Fashion.
- Brooks, Picken M. (1999).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 Publications, Inc.
- Howard, M. (1995). *The Tudor Image*. London: Tatc Gallery.
- Arnold, J. (1985). *Pattern of Fashion*. New York: Drama Book.
- Macleod, C. (1996). *Tudor Portraits*. London: National Portrait Gallery.
- Norris, H. (1997).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 Publications, Inc.
- Ribcero, A. and V. Cumming (1997).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London: B.T. Batsford Ltd.